

유아의 사회적 애착 발달

문 영 입
(가톨릭 의대 간호학과)

목 차

1. 서 론
2. 애착이론의 형태
3. 애착행동의 유형
4. 애착발달 단계
5. 애착발달 측진 요소로서 조기 접촉과 조기 모아 상호작용
6. 애착발달 방해 요소로서 모성 격리 및 모성적 양육상실
7. 결 론
- 참고문헌

1. 서 론

애착은 발달 과학에서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며 Bowlby(1958)에 의해 인간발달 첫 단계로서 아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예정적 관계로서 처음 기술되었다(Belsky, 1982).

Bowlby는 애착은 인간을 미롯한 여러 동물이 어떤 특정 개체에 대해서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Affectional tie)라고 하였다.

Bowlby는 생득적으로 유아의 어머니를 함께 뮤어놓는 내재적인 선을 애착 관계로 보고, 이 관계를 격리불안, 타인에 대한 공포심 탐색활동 등의 활동과 연관시켜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하여 애착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기능을 검토하여 생존하기 위한 약탈자로부터의 방어기능이 애착 행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였다.

Ainsworth는 애착은 인간이나 동물이 그 자

신과 다른 특별한 대상에 대한 근접성과 접촉을 추구하는 경향이고, 애착행동은 근접과 접촉을 촉진하는 다양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애착은 내면적 작용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찰되어질 수 없는 것이며, 애착의 유무는 행동으로부터 알 수 있다.

Ainsworth는 낯선 상황에 대한 아동에서 애착 행동과 의미있는 애착을 관찰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근거로 3가지 유형, 즉 안정된 애착(secure), 불안—회피 경향의 애착(ambivalent) 혹은 불안—저항 경향의 애착(avoidant)으로 애착의 질적 특성을 분류하였다(안경순, 1983).

사회적 애착은 항상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호과정으로서 반드시 상호작용하고 있는 양측의 감정과 행동을 포함한다. 현재 유아의 사회적 발달 중에서 가장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주제이자 사회적 애착의 발달이다. 비 인간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과 아울러 유아는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된다. 엄마와 같이 어떤 사람은 친숙해지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유아는 점차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애착하게 되며, 그들도 유아에게 애착하게 된다. 특정의 타인에 대해 정서가 깃들인 유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능력과 소인의 발달을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애착의 발달이라 한다.

사회적 애착은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이의 애착은 보통 생물학

적 어머니 또는 기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부모에 대한 아기의 애착의 본질은 근접요구(proximity seeking, Bowlby)와 애착 대상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행위의 구조와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계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어 왔다. 애착의 중요성은 간단히 말해 부모와 아이와의 어릴적 상호관계가 장차 사회 인지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데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러한 애착이론이 이론에 더 두드러지 않고 간호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과학 분야에서 적용, 연구 평가되는 기초 작업을 위해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이론과, 애착 발달을 측정 혹은 방해하는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애착이론의 형태

애착과 그 요소들의 주요 이론상의 공식화는 유아나 어린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애착이론에는 세 가지 중요한 형태가 있는데 심리 분석적, 동물 행동학 그리고 학습이론들이다.

심리 분석적 구조에 있어서 애착은 본능적 반응과 목적론의 관계에 의해 설명한다. 애착은 본능적 충동이며 어머니는 충동의 목적 또는 목표이다. 그 욕구들은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목표를 지닌다.

동물 행위 등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들은 애착을 생리적 욕구가 서로 다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도록 규정지어진 특정한 종의 행위들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끼 오리들은 태어난 후 그들이 처음 보는 움직이는 물체에 키스를 한다. 영장류는 처음으로 공포에 절했을 때 어미에게 빽 달라 붙는다. 고양이들은 호흡과 위장의 작용을 자극하기 위해 그들의 새끼들을 향한다. 이 모든 행동들은 어린 것을 보호하고 생존을 돋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젖을 빨고, 매달리며, 울고, 웃

는 행위를 함으로써 애착 대상물의 접근을 진척시키고 먹을 것을 요구하며 함께 놀고 유해요소를 제거하며 그 외의 다른 욕구들을 만족시킨다.

학습이론들은 2차적인 충동을 통한 애착을 묘사하는데 어머니가 아기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욕구만족, 편안함, 그리고 결국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쌩트게 된다. 이렇게 개념화 할 때 애착의 대상이 생모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일지라도 될다는 것은 명백하다.

3. 애착 행동의 유형

Bowlby는 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애착행동 발달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행동체계를 갖추고 태어나는데, 1) 빠는 것(sucking), 2) 매달리는...(clinging), 3) 따라다니는 것(following), 4) 우는 것(crying), 5) 미소짓는 것(smiling) 등의 5종류의 반응이 큰 도자간의 애착의 기원이 되는 생득적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5가지 생득적 활동이 특정인물에 대한 애착을 발달시켜주는 원초적인 테기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Robson(1967)은 눈맞춤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 Ainsworth는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어린이 애착 행동을 설명하였다.

- 1) 차별적인 울음(differential crying)
- 2) 차별적인 미소(differential smiling)
- 3) 차별적인 발성(differential vocalization)
- 4) 어머니를 향한 시각—운동적 경위(visual-motor orientation towards the mother)
- 5) 어머니가 방에서 나갈 때 우는 것(crying when the mother leaves the room)
- 6) 추적(following)
- 7) 올라앉기(scrambling)
- 8) 얼굴 파묻기(burying the face)
- 9) 안전한 자리로 부터의 탐색활동(exploration from a secure base)
- 10) 매달림(clinging)
- 11) 팔을 올려 인사하기(lifting arms in greeting)

12) 양손을 때려서 인사하기(clapping hands in greeting)

이러한 애착유형은 Bowlby의 의견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4. 애착 발달 단계

A. Bowlby의 애착 발달 단계

Bowlby는 인간의 애착 발달 과정을 4가지 단계로 나누었고 태어날때부터 내재 되어 있는 행동체제로부터의 발달임을 강조하였다.

1) 제 1 단계(0~3개월) :

무선택적 반응단계(Indiscriminate Responsiveness to humans)

이 단계의 유아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방법 즉, 용알이(babbling); 뺨기, 미소짓기, 울음 등의 행동과 파악반사 및 모로반사 등으로 반응하나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시기 유아는 부드럽고 따뜻한 신체적 접촉으로 조금씩 안정감을 느낀다.

2) 제 2 단계(3개월~6개월) :

특정인물에의 반응단계(Focusing on familiar people)

이 단계에서는 반사행동은 소실되어가며 미소짓기, 울음, 용알이 등의 반응은 자기의 가까운 인물, 즉 어머니, 아버지, 그 외의 양육자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유아의 신호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내주는 인물 또는 가장 즐거운 상호작용으로 이어진 인물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게 된다.

3) 제 3 단계(6개월~3년) :

접근유지단계(Active proximity-seeking)

이 단계의 유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애착 행동으로는 강한 따라가기, 낮가림, 격리불안, 탐색활동의 근거로 양육자를 이용하는 것 등으로 특정 인물과의 접촉이 없었던 유아는 이러한 발달이 지체될 수 있다.

4) 제 4 단계(3년~아동기) :

동반자적 행동단계(partnership behavior)

3세 이전의 어린이는 양육자에게 접근을 유지

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양육자의 계획과 목적에는 아직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 단계에 유아는 어머니가 우유를 가지러 다른방에 간다는 등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부모가 멀리 가도록 허용하게 된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마치 동반자인양 행동하기 시작한다. 유아의 행동은 더 융통성 있게 발달하게 되며, 이 시기의 모자 관계는 장래의 협조성의 토대가 된다.

B. Ainsworth의 애착 발달 단계

Ainsworth는 애착 발달을 4단계로 구분하였고, Bowlby의 애착발달단계와 비슷하다.

1) 1단계(0~2~3개월) : 무선택적 사회적 반응 단계(phase of undiscriminate social responsiveness)

유아는 환경, 특히 사람의 특징에 순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아의 여러가지 접촉적이이고 신호적이고 등등적인 접근행동과 접촉촉진 행동은 대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 쉽게 결정된다. 접촉시 유아의 행동은 시각 고정, 시각추적, 듣기, 입으로 음식찾기(rooting), 자세조정(postural adjustment), 뺨기, 움켜쥐기, 미소짓기, 울음, 발성 등을 보인다. 측각에 의한 균육운동, 자각의 구별이 먼저 오고, 청각 구별이 다음에 오고, 시각구별은 8주 보다 더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2) 2단계(2~6개월) : 선택적 사회적 반응 단계(phase of discriminating social responsiveness)

이 시기동안 유아는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선호한다. 그러나 그는 친밀한 인물(엄마와 1~2명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을 명백히 구분하지는 못하나 반응을 한다. 첫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친밀과 특이한 반응이고, 두번째는 거리를 둔 사람들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특이한 미소, 발성, 우는 것을 나타내고, 두번째는 사람이 빙에서 나갈때 특이한 인사 그리고 우는 것이 나타난다. 이 단계의 말기에에는 보다 적극적인 균접추구 행동의 출현과 접촉-유지 행동이 생길때이다.

3) 3단계(7개월~3년) : 근접과 접촉추구에 적극적 출선 행동 단계(phase of active initiative in seeking proximity and contact)
이 단계동안 초기의 모든 애착 행동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문화되지만 근접과 접촉진전에 대한 유아의 출선 행동이 증가 한다.

그들은 종종 어머니나 다른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반응을 불러 일으킬려고 한다. 근접을 찾는 행동축진, 손과 팔의 자발적인 운동은 접근 행동에서 두드러지고, 접근, 매달리기 인사반응도 더욱 더 활발해 진다.

이 시기에 이로는 나이는 7개월로 흔히 처음으로 유아가 애착을 표현하는 시기이다. 동시에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이 시기를 진정한 목표환계라고 판단했다.

4) 4단계(3세~) : 목표-수정적 동반자 단계(phase of goal-corrected partnership)

유아는 어머니의 경해진 목표에 대해 그되고 어머니가 유아가 실현하기 위해 채택할 계획들에 대한 두엇을 추론하기 시작한다. 그 때 유아는 어머니의 경해진 목표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가 접촉, 근접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적당한 좋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5. 애착발달 촉진 요소로서 모아의 조기 접촉과 조기 상호 작용

초기 상호과정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Sugarman(1977)에 의해 정의된 범수중에는 유전적 특징, 문화적 습관과 사고방식들, 어머니 자신의 어떤 시절 경험들, 아버지, 남편과 주요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현재의 관계들, 그리고 임신에 대한 준비 같은 출산 이전의 영향들이 있다.

Belsky 등(1984)은 영아의 출생순위, 월령, 성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생활이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시했으며 어머니의 특성과 돌봄의 기술이 브아 애착발달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인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조기 부모-유아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관계들의 질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러한 확신은 어머니와 격리되어 있던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운동신경의 발달에 있어 나쁜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추론되었다. 또한 영양실조, 악물복용, 질병 그리고 출산준비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출산이 일박한 시기에는 전통의 유도나 막의 인공적인 파열, 회음절개, 절사, 약물치료, 그리고 산고를 치르는 동안 임산부를 침대에만 갇금시켜 놓는 것 등의 조치들이 어머니가 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적인 안위나 간호사가 관계한 환경조성이 조기 모아상호 과정을 촉진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 출산이 어렵거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아기에게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가 모두 조기 모아 상호과정에 관계할 것이다. 출산후에는 젖을 먹이는 과정, 포경, 모유를 먹이는가의 여부, 그리고 산후 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의 행동과 신생아실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산모들은 매우 많은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들은 아이들을 한 개인으로 보고 관심을 집중시키며 적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육아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남편 역시 관심과 도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Klaus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하는바에 의하면 인간에게도 유대가 발생하는 민감한 시기가 있다고 한다(Klaus, Jerauld, Kreger, McAlpine, Steffa & Kennell 1972). 그들의 연구에는 한 어머니들 그룹은 출산후 첫 3일 동안 아기들과 일찍 계속해서 접촉하도록 배려하였고, 한 통제 그룹은 병원 일정에 따라서 아이와 접촉을 하게 했다. 어머니의 행동간의 차이점은 출산 1개월 후 1년 사이에 관찰되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접촉한 어머니들은 좀 더 달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더 많이 눈길이 다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에 있어서 아기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으로 인한 아기의 궁극적인 발달은 출산직후부터 계속된 접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Salk(1970)는 생후 24시간을 토아 유대의 결경적 시기라고 주장하였다(perry 1983). 이런 연구로 인해서 출산과정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다.

Bowlby는 유아와의 애정이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유아의 밭언이나 접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내주는 것으로 애착이 발달된다고 한다(장영희, 1977).

Ribble은 어린이가 바깥세계와 작용해가는 동안에 어머니 또는 어머니 대리자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판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만족감이 점차로 어머니나 양육자에 대한 애착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김재운, 1979).

Harlow는 원숭이 실험을 통해, 피부 접촉이 애착 발달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김재운(1979)은 젖빨기 만족감, 피부 접촉의 경험, 어머니의 애무와 부드러운 보살핌,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등이 모자간의 애정적 결합을 더욱 활발하고 깊게 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두어볼때 유아가 애착심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요인은 즉각적이고 애정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의 발달 차이는 충분한 자극 제공보다는 초기의 다양한 자극 제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Casler, 1968), 영아에게 제공되고 있는 들봄의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Yarrow, Rubenstein과 Pederson(1975) 등은 들봄을 제공하는 환경에 있어서 두생물적 환경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의 반응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진을 위해 분만실에 부부는 아기를 살펴보고, 삶을 맞대고 눈길을 마주치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눈길의 접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눈에 안락을 떨어뜨리는 것이 치연될 수 있다. 부모는 서로 사귀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아기하고만 있는 시간을

제공받아야만 한다. 현대 병원에서 모자 동실을 지향하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간호사는 부모에게 유아의 특특한 특징을 알려 주어 부모들이 유아의 신호를 해석하고 적절히 응답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유아 관리의 현실들, 부모의 역할로의 전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예상지도는 보통 출산 전후 부모에게 유용하다. 어머니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수단이 발전되었다(Reiser, 1981). 애착은 스아파 겸사시에 평가되도록 권장되어 왔다(Parens, 1972). 불특정한 미소, 낮선이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격리와 같은 발달 이정표들이 증명될 수 있다.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부모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 조산아 이거나, 또는 병에 걸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 격리가 필수적일 때는 빠른 접촉과 유아간호에 부모를 관여시키는 것이 장려되어야만 한다.

6. 애착 발달 방해 요소로서 격리 및 모성적 양육상실

Freud는 어머니 사랑없이 인간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라는 명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Lowrey는 연구 결과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적, 언어적, 성격적 결함을 가지게 되며, 모범적 의로설비를 해 주어도 보통 아이들 보다 더 병에 잘 걸리며, 언어 지체가 심하며, 어휘 수가 적고 겨우반응 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김재운, 1984).

1907년 Budin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서 격리된 후에 아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를 알아냈다. 유아들이 고아원에 탈격쳤을 때, 신체적으로는 잘 돌봐졌지만 여러 보호자들과 놀면서 상호작용할 기회는 없었고, 한 사람의 보호자와 관계를 맺을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아들은 멍해지고, 병들고, 일부는 죽었다는 것이다(spitz, 1965).

조산아, 신생활아가 출산후 어머니로 부터 격

려 되었던 아이들은 유아나 어머니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Leifer 등, 1972).

Yarrow(1964)는 유아가 애착 대상으로 부터 격리되는 것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유아가 안정된 관계를 획득하고 있는 시기, 즉 6개월에서 2년 정도 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격리되었을 때의 나이, 격리기간에 따라 격리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고 한다. 오랫동안 격리된 유아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접촉하려는 기색도 없고, 어머니가 안으려고 해도 거절한다. 그러나 결국 강력한 애착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Ainsworth 등(1978)은 적당한 대리모 역할은 정상적인 어머니-아이관계들을 방해하기보다는 회복시키는데 축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Bowlby는 어머니의 부재가 어린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서 자라는 어린이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발달을 비교 연구해서 초기의 가정부재의 경험에 어린이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써 이른바 「시설병」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Bowlby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뗐지 못한 어린이의 상태를 도상적 양육상실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은 다시 부분상실과 완전상실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완전상실이란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처럼 어떤 특정인물로 부터의 양육을 못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분적 상실이란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지 않더라도 어머니를 대신한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거나 어머니와의 장기간 이별을 경험한 때를 의미한다(안경순, 1983).

도상적 양육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Bowlby는 생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보고 5년까지도 그 영향력을 크다고 하였다.

Ainsworth(1973)는 6개월에서 4년 사이의 양육자와의 격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며, 이 시기의 유아는 격리에 적응할 독립심이나 그 격리의 이유를 이해할 능력이 아직도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속한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하여 장기간 동안 재결합하

지 못하면 분리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의 회복이 어렵고, 영속적인 장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Yarrow(1953)는 이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으며 Spitz와 Wolf(1946)는 5개월로 보고 있다(안경순, 1983).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볼때 어머니와 격리된 후 3~5개월 이내에 재결합하지 못한다면 모성적 양육이 부분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성적 양육상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Yarrow(1961)는 시설수용, 도성으로부터의 격리, 다수의 모성 역할자, 모성의 질, 왜곡을 들고 있으며, 정원식(1975)은 양육과 지도 결핍, 모성으로부터의 단기 또는 영구적 분리, 모성과의 부조화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격리되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나 설모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양육되므로 특수보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성적 양육이 부분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성적 양육의 상실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하여 Bowlby는 인성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와 치료가 곤란하고 영속적인 정신적 장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애착관계, 혈족 관계에 손상을 끼친다고 보고 하였다.

Mussen은 일시적 혹은 심하면 영속적인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서적으로 차갑고 불안정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시설의 어린이들은 말이 없고 수동적이며 비활동적이라고 보고 하였다(안경순, 1983). 이와 같이 둘보아 주는 이와의 접촉이 극소화되면 애착이 안되므로 늦가림, 격리불안도 없으며, 사회적 반응도 적어지며 따라서 웃는 것, 증열거림, 어른과 가까이 하려는 것, 언어 등의 발달이 늦어질 것이다.

특히, 시설의 어린이들은 어른과의 애착의 기회가 적어서 어른과 어울려 나타나는 모든 행동 즉 달라붙고 불쾌하면 울고, 놀기 위해 어른에게 접근하는 경향이나 소리내는 것 등이 모두 발달이 늦거나 잘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길상태, 1980).

정영숙(1977), 안경순(1983)은 어머니에게 접촉하는 행동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 늦가림, 격

리불안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안경순(1983)은 특정 인물과의 접촉이 없었던 어린이는 낮가림 격리불안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모성적 양육이 충족된 집단은 상실된 집단에 비하여 낮가림, 격리불안, 그 밖의 애착행동의 표현이 더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물론 직장모 자녀에서도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은숙(1982)의 연구에서 낮가림 발생율은 아이의 성, 주양육자 간의 종류, 유아의 의출경험 정도와 상관을 보였다. 즉 낮가림은 여아가 남아보다, 생후 7개월까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주 양육자였던 아이들이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두었던 아이보다, 그리고 의출경험이 적었던 아이들이 많았던 아이들보다 높은 낮가림 발생율을 보였고, 격리불안 발생율은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안아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격리불안 발생율이 높았다.

7. 결 론

유아의 사회적 애착은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첫 일년 동안 발달된다.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인지도 발달하게 되며, 아울러 사회적 애착, 즉 고성애착도 형성되게 된다. 즉 애착은 유아가 애착대상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다.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이론을 통해 애착행동의 유형 및 애착 발달 단계를 고찰하고 애착 발달 측정 요소로서 조기 접촉과 조기 모아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애착 발달 방해요소로서 모성 격리 및 모성적 양육 상성이 문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간호사는 유아 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접촉과 조기 모아 상호작용에 방해되는 병원 정책과 환경들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출생전 산전 관리에서부터 출생후까지 모아 건강 관리에 임무를 지니고 있는 간호사는 모아의 조기 접촉과 조기상호 작용 측정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은 물론 부모로 하여금 부모 역할학습 및 육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애착 발달 측정을 위한 돌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직장모의 증가로 부분적 모성 상실을 갖게 될 유아들을 위해 턱아소 등에서의 대리모의 역할의 중요성 및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분만후 휴식제도 및 분만휴가의 연장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설속에서 양육되는 유아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돌봄을 통해 유아가 사회적 애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애정적인 대리모 역할이 무엇보다 질질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재은(1984). 유아의 가능성 교육, 서울: 보육사.
김성래(1980).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서봉연(1987). 심리학 개론, 서울: 박영사.
서봉연과 송영자(1988). 인지발달, 서울: 쟁양적성 출판사.
Ainsworth, M.D.S. (1982).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J. Belsky (ed.), *In the Beginning*. (pp. 135~14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insworth, M.D.S., Behhar, M.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ee, H.L., & Mitchell, S.K. (1980). *The Developing person*, New York: Harper & Row.
Casler, L. (1968). Perceptual deprivation in institutional settings. In G. Newton, & S. Levine (eds.), *Early Experience and Behavior*. Springfield: Thomas Pub.
Greenspan, Stanley I. (1981). *Psychopathology and Infancy and Early Childhoo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laus, M.H., & Kennell, J.H. (1982). Parent-to-infant attachment. In J. Belsky(ed.), *In the Beginning*. (pp. 55~6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erry, S.E. (1983). Attachment theory. In I.W. Clements, & F.B. Roberts(eds.), *Family Health*. (pp. 109~121). New York: A Wiley Medical Publication.
- Yarrow, L.J., Rubenstein, J.L., & Pedersen, F.A. (1975). *Infant Environment: Early Cognitive and Motivation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논문 및 정기간행물>**
- 장영희(1977). *J. Bowlby의 attachment 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정영숙(1977). 한국 유아의 낮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박은숙(1982). 어머니의 양육차원이 한국유아의 낮가림, 격리불안 및 대물애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한경순(1983). 유아의 양육차간의 애착수준이 유아의 행동 및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Ainsworth, M.D.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Klaus, M.H., Jerauld, R., Kreger, N.C., McAlpine, W., Steffe, M., & Kennell, J.H. (1972). Maternal attachment. importance of the first post-partum day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86, 460~463.
- Leifer, A.D., Leiderman, D.H., Barnett, C.R., & Williams, J.A. (1972). Effects of mother-infant separation on maternal attachment behavior, *Child Development*, 43, 1203~1218.
- Parens, H. (1972). Indices of the child's earliest attachment of his examination, *Pediatrics*, 45, 600~603.